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2016 상반기 제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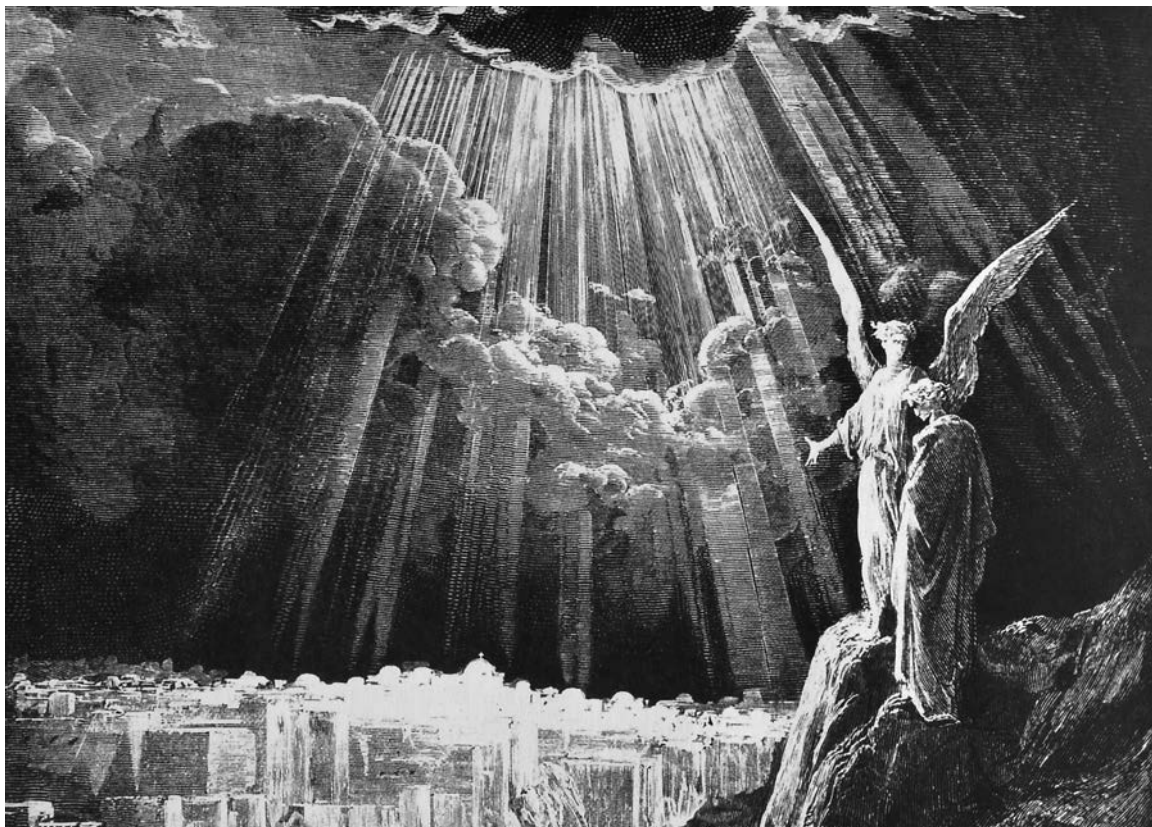
발행 한국관상지원단 편집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8
MODS빌딩 512호 (문정동, 모즈아울렛) Tel_ 02-421-1968 Fax_ 02-409-1968
E-mail_ koreacontout@dreamwiz.com www.centeringprayer.or.kr

성삼의 신비

26권 1호(2010년 12월), 토머스 키팅 / 이청준 역

향심 기도는 우리 안에 움직이는 하느님의 생명에서 나온다. 우리는 처음에 이러한 움직임을 더 큰 것에 대한 갈망, 곧 우리 자신 너머에 계시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와 의 일치에 대한 무언의 열망으로 체험했을 것이다. 일치의 순간들은, 음악을 듣거나 맑은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 자연 속에 깃든 신성함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러한 갈망은 성경 봉독, 성사 참례, 또는 다양한 신심 행위들과 같은 종교적 수련에 의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었으며 이제는 그분 본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향심 기도는, 성삼의 심연에서 솟아나 피조물과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무조건적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의 실존적 관계를 활성화시킨다. 향심 기도를 하며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신적 생명의 거대한 흐름과 연결되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영적 의지가 전원을 켜서, 우



리 몸속에 있는 전류(신적 생명)가 활성화되고 신적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 것과 같다. 그 에너지는 이미 그곳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요한 7, 37-39)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른바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언급하고 계신다.

향심 기도의 원천은 세례 때 혹은 우리가 은총의 지위로 들어갈 때 시작된 우리 안의 하느님 생명, 곧 성삼이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의 내주에 관한 교리는 영성 생활의 원칙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하느님 자신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 과학에 비유하

자면, 소위 주파수가 높아서(실제로 이 주파수는 순수한 믿음만이 신적 현존에 충만히 다가설 수 있을 정도로 높다), 우리의 일상적 기능들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성삼의 교리는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성부의 영원한 말씀), 성령이라 부르는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 있는 세 가지 관계를 선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으뜸가는 신비다.

이 맥락에서 ‘성부’는 아름답고 선행하고 참된 모든 인간관계를 망라하지만, 아버지로서 혹은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성삼의 교리는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신학적 모델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성부께서는 모든 가능성의 바탕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성삼 안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 ‘말씀’이시다. ‘말씀’은 성부의 본질을 충만히 표현하는 성부이시다. 어떤 의미로, 성부께서는 말씀을 발설할 때까지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분은

성자 안에서만, 즉 당신의 내적 말씀 안에서만 당신이 누구인지 아신다. 성령은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공통된 끈이다. 달리 말해, 성부의 비워내심-무한한 가능성 안에 담긴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성삼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온전히 표현된다. 성부는 성자에게 당신 자신을 쏟아 부으신다. 그분께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다. 전통 신학의 가르침은 성부께서 성자 안에 사시며, 자기 자신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한다. 성자는 성부께서 전적으로 자유롭게 넘겨주신 엄청난 선성에 답하여, 일종의 포용으로, 또는 교회 교부들이 말하는 성부와 성자의 ‘가장 달콤한 입맞춤’으로, 자신을 성부께 돌려드리신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말하자면 두 분 공동의

마음이다. 성삼 안에는 자기도 없고, 소유적 태도도 없다. 모든 것이 자기 승복이다. 모든 것이 선물이다. 모든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 복음 사가는 조건 없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모든 피조물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생겨난다. 그래서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적 원천(요한 복음서의 머리글)이시며, 모든 차원의 피조물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신다. 피조물은 무한한 실재의 다양한 표현이다. 하지만 그 실재는 어떤 식으로도 소진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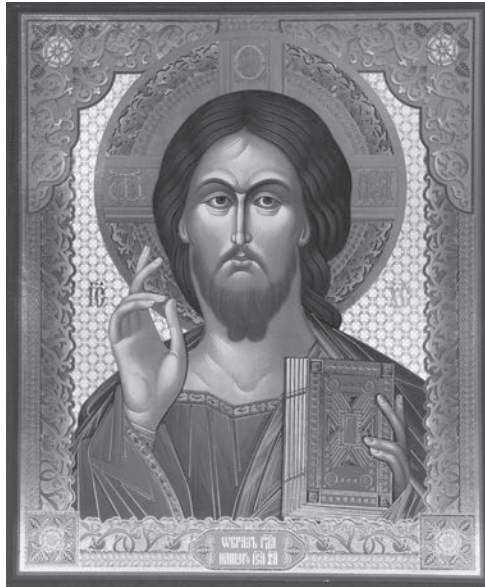
말씀이 육화하심으로써 당신을 비워내신 것은 성부께서 당신의 내적 말씀을 표현하실 때마다 행하시는 일을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그 현현이

피조물 안에서 발생할 때 그것은 비워냄의 형태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신적 사랑이 피조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진통을 겪어야 한다. 성부께서 어떤 의미로 죽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충분히 표현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는 하느님이기를 그만두신다. 적어도 하느님께서는 창조 이전의 당신 모습을

을 포기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전적으로 피조물에 개입되셔야 한다.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말씀(하느님의 절대적으로 충만한 표현)이 지니신 진선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 또는 신적 사랑이라 부르는 비범한 사랑의 가장 충만한 인간적 표현이시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비의 핵심이다. 이것은 지성적인 수수께끼라는 의미가 아니라, 놀라움

과 경외라는 의미의 신비를 말하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전달해준다. 그 기쁨에 적합한 응답은 우리의 전적인 승복뿐이다. 성삼의 관계는, 본성상, 무조건적이며 전적인 자기 승복의 신적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 무한한 사랑은 성부에게서 나와서 성자에게로 흘러들어가며, 성자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전달된다. 신적 사랑의 강으로 뛰어든다는, 아니면 적어도 영원한 생명의 강에 발을 담그라는 초대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다. 거짓 자아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언제나 흐르고 있으며 끝없는 은총의 선물을 주는 사랑의 강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능력을 더 열어놓을 수록, 더 잘 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줄수록,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게 된다.



계속 주는 선물

31권 1호(2014년 12월), 토머스 키팅 / 이청준 역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분
우정의 완전한 무상성을 표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여 죄가 되시고 죄의 모든 부정적 결과를 짊어
지셨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심
으로써, 영원한 말씀의 인간적 표현이신 그리스도, 우
리를 위해 죄가 되신(2코린 5,21) 그리스도 안에서 드
러나는 끝없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하느님과 타인에게서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독,
낙담, 실망, 자기 증오, 타인에게서의 고립의 고통을 불
러일으킨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조건과 동일
시하심으로써 우리 죄와 그 결과들은 용서받고 제거되
지만, 인류가 지상에 머무르는 한 하느님께서서는 신적
방식으로 계속 우리 죄의 결과들을 감수하신다. 이 무
한한 동정심, 즉 다른 모든 사랑을 초월한 사랑은, 신적
본성을 향한 성삼위의 겸손과 초연함과 전적인 무소유
적 태도와 그 모든 표현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저승에 내려가심은 모든
죄를 무화시킴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초대, 즉 은총에 의해 신적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하
느님이 되라는 초대이다. 참된 선물이며 단지 대여가 아
닌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로지 필요한 것은, 우리
가 피조물임을 받아들이고 무에서 창조됨을 받아들이
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닮게’ 만들어진 피조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이면서 전부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바로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성의 ‘무nothing’와 ‘전부everything’는 상반되는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말하자면 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창조로 말미암아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한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발산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안의 신적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거나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성령처럼, 말의 소리를 넘어서 가르친다. 그것은 무수한 방법과 상황들 안에서 신적 생명을 전달함으로써 소통한다. 그리하여 신적 생명은 무한한 가능성을 포함한다. 신적 생명은 보이는 방식으로 활동하던 은밀히 전달되던, 은총의 무한한 원천이다. 그것은 피조물들 안에서 스스로를 인지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존재하며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것은 사실 ‘전부’이며,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인 신적 본성의 ‘절대 무’ 안에서 기뻐한다.

생각은, 이성적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선물로서, 통제하고 만들어내는 특성을 지닌다. 그것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고 오감과 사고 과정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마음 안에 경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신적 현존을 일깨우기 위한 기본적 수련이다. 그러면 모든 활동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하느님과의 더 깊은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신적 활동에 수용적이 될 수 있다. 신적 현존은 단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직관적 상태와 함께 시작하고 더 심오한 상태로 이동하여서, 결국 ‘신적 하나됨’에 최고도로 참여하는, ‘하느님 의식’에 개방되고 수용적이 된다.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짓 자아의 허무와 죄와 에고를 강조하는 반면, 외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똑 같은 체험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험한다. 소심하고 후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선함을, 혹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심을 인정하는 노력을 감행해야 하며, 교만과 허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서 침묵과 고독을 일구어나가야 한다. 삶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다. 즉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통해서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들은 때때로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적 요법의 치료를 확고히 믿으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매사에 실패한다 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스스로 이 점을 계속 상기한다면, 다른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이유는 전혀 모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 우리 안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결국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의 하느님을 알아채게 된다.

깊은 묵상에서 나온 몇 가지 성찰

31권 2호(2015년 6월), 토머스 키팅 / 이청준 역

생각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은 채, 그저 의식만 있을 때가 있다. 그러면 지복이나 깨달음이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욕망도 없다.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한 비어 있음의 상태에서는, 기쁨이 저절로 일어난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 시도하는 즉시, 기쁨은 멈춘다. 비어 있음(개방, 순수한 의식)의 밑바닥에는, 기쁨, 충만함, 현존 그리고 평화가 있다.

바로 그 비어 있음과 자유를 매 순간 속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고통의 한 가운데서조차 행복할 것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라.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하라. 항상 이끌려갈 채비가 되어 있어야. 어디로 혹은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말이다. 분별심 곧 내 기준에서 사물을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마음을 잠재워라.

두려움은 우리가 만든 중심, 즉 자아로 이끈다.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중심, 즉 참자아로부터 펼쳐 나온다.

우리 이웃이 자신들의 고통을 자각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을 돕기 위해 손을 뻗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고 평화를 느낀다.

참자아는 무지개 빛깔이며 존재 전체를 체험할 만큼 확장된다. 우리는 한두가지 색깔로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색깔도 거절할 필요가 없다. 그 모든 색깔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은 색깔을 드러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드러낸다. 그 빛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는 그 빛을 함께 나누고 있다. 사다리와 계단은 이전 단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나무가 나이테를 더해가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차원을 하나씩 더해간다.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라. 네가 호전적이거나, 욕정이 강하거나, 겁이 많거나, 소심하고 수동적이라면, 매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그 동안과 그 후에 너의 감정을 살펴보아라. 단 비난이나 수치심이나 분노나 낙담과 같은 감정적 반응은 동반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너의 결점과 한계에 대해 작업하시도록 맡겨라. 그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과 함께 지내라.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교정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들을 지켜보고, 그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의 힘과 과장된 역할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신적 사랑이 있는 네 존재의 중심으로 계속 나아가라. 그리고 어떠한 육체적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난든 그것을 대면하고 환영하라.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은총과 감사의 목소리’는 세계 각지의 관상지원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서 얻은 향심 기도 선물에 대해, 그리고 이 선물이 피조물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은혜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관상지원단 30주년을 경축하는 한 해 동안 월요일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물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체험담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김영선 수녀 옮김

1. 바오로 보집오스키, 미시간

매일 향심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십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향심 기도를 하면서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제는 관상지원단 안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시간 주, 로체스터에 있는 성 안드레아 성당의 토요일 기도 모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오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본당과 저에 대한 그들의 고마운 마음이 서로를 뿌듯하게 해 줍니다. 참으로 그 동안 제 삶에 충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 켄나 배론, 콜로라도

저는 심리학자로서 상실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 애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부들을 만납니다. 부부 상담을 할 때 향심 기도를 부부가 함께 시작하면서부터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서로 직면하고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 병중에 있는 사람, 임종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들은 향심 기도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슬픔, 그 자체의 감정 너머의 어떤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향심 기도를 통해 조각난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균형을 이루게 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3. 요셉 보일 수도원장, 성 베네딕토 수도원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러한 만남의 자리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이며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 깊이만큼 우리는 행동으로 그 체험을 옮기고 또 세상에 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거나, 신문을 볼 때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부정적인 요소인 욕심과 이기심, 적대감, 미움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 용서, 신뢰, 관용과 돌봄이 절박하게 필요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중심에 계시는 하느님 현존을 이 세상에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4. 헬린 보켈

항심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 하루 두 번 하느님 곁에서 머무는 시간 또 하느님과의 특별한 데이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각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과 하루 두 번의 기도 수련으로 주님과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일상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게 됩니다.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속상한 일들에 대해서도 제 마음이 더 이상 그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성령께서 제 안에 함께 하시니 제 마음의 중심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수산나 볼스터, 뉴욕

2007년에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일을 하고 항상 바쁘게 지냈는데, 언니가 저에게 항심 기도를 한 번 배워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성당에 항심 기도 그룹이 있지 않니?” 라는 질문을 받고 그 당시에는 “어렵없는 소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간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시험 삼아 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번 항심 기도를 한 후 일하러

가곤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일하러 가는데 걸어가는데 가게 하나가 눈에 띄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가게가 좋아 보였습니다. 우아! 정말 멋진 가게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 생겼나요? 하고 물었더니 오래전부터 있던 가게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즐겁고 흥분된 마음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벌써 3시가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 시간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 왔는데 제 전화기 자동 응답기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었고, 응답기를 틀었을 때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전화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때 저는 이런 저의 행동을 보면서 “아마 다른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내 삶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 파밀라 비그맨, 텍사스

제가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하느님은 초월자이심을 배웠습니다. 향심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느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몰랐습니다. 향심 기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느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하느님께서 어디에나 현존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월하시거나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사람, 창조물 안에 현존하시며 그 사실이야말로 사랑의 계시 자체입니다.

7. 알랜 프래터, 루이지애나

향심 기도는 제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온전한 존재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침묵 안에 더 많이 기도할수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다 온전함과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길이나 상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 즉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무례한 판매 사원을 만날 때, 그들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그들도 나처럼 온전하고 충만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매일 향심 기도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 리앤, 빌립, 텍사스

저는 향심 기도를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향심 기도 안에서 저는 하느님의 팔에 안겨 쉴 수 있고 어느 때는 부드러운 단비가 제게 내리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주로 청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하느님 안에 폭 잠겨 언제든지 달려가 그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청원기도와 관상기도 모두 좋아하며 이 둘이 참으로 서로 잘 어우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9. 차알스 오웬 버틀러, 미네소타

하루에 두 번 20분씩 기도하면서 - 날마다 두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 기도 시작의 처음 몇 분간은 제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 현존에 대한 의식이 일종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제가 타인에게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루 종일 하느님 현존 의식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저로 하여금 하느님 현존을 더 의식하게끔 해주십니다. 향심 기도는 제 안에 계신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10. 게일 지아코마지, 워싱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 기도 수련을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가 형성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실상 이 나라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향심 기도 그룹을 만날 수 있습니다. 키팅 신부님께 그리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11. 루 바크롯, 플로리다

깊은 기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순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아주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은 가게 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기도의 결실을 얻습니다. 제 아내는 하느님을 참으로 깊이 사랑하는 관상지원단 사람들과의 만남과 기도 안에서 깊은 고요와 평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12. 버지니아 매터 수녀, 미네소타

저희 기도모임은 수요일 오전마다 만나는데 거의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안나라는 한 자매님이 기도모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모임을 인도하고 헌신해 온 덕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약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끔 참석자의 수가 변동은 있습니다만) 이 기도모임을 갖습니다. 기도모임을 할 때 여러 생각, 갈등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주님. 당신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이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머무릅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느낌, ‘좋다’라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하루의 삶에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한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다릅니다. 더 많이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13. 에릭 디저벳, 텍사스

항심 기도를 통해 저는 하느님께 돌아가고 그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매료되어(마치 어떤 꼬임에 빠져) 그분에게로 되돌아가는 그 이상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났지만 한 동안 동양 종교의 묵상법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관상지원단의 주말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토머스 키팅 신부님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씩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교를 통해 전해 오는 제가 잘 몰랐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꼬임에 빠진 것처럼 말이지요. 매일 기도하려고 앉아 있을 때 제가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더 깊은 뿌리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항심 기도를 실천한 지가 15년째가 되는데 이런 체험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14. 필라 마틴, 오하이오

항심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도 확실한 예는 제가 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러저러한 식으로 해야 한다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네가 바로 너야, 그리고 너를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게는 큰 발전이고 아이들도 저의 이런 모습에 기뻐합니다.

15. 팀 쿡 목사, 오하이오

항심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저의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목표를 성취하고 일을 이루어 내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존재로 생각했고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물에 대한 관상적 관점을 갖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 현존하고 있고 다른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만이 내가 바라는 것 전부이며 다른 이들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로써 저의 온 하루가 변하게 됐습니다.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에 대한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에 있을 때 아내와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서로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변덕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심 기도를 하게 되면서부터 사랑의 자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16. 캐롤 웨스트, 미네소타

항심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친밀한 사랑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최근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에 한 학생이 규칙도 안 지키고 관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줄 때 누군가가 마치 내 어깨를 두드리며 그에게 반응하기 전에 마음을 깊이 들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더 느긋하게 대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강요하는 엄격함보다 어떤 상황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기꺼이 고려 해 볼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17. 니콜라스 콜, 알칸사

항심 기도는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만나는 환자들을 어떤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환자의 눈을 검진할 때에, 눈은 몸의 일부분이고 그 몸 안에 영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체험이 제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18. 잔 리드, 텍사스

제 생각에 향심 기도는 마치 물결 효과처럼 파급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들이 당신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아 봅니다. 평화로움을 여러분 안에 느끼고 자신이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향심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이 더 열려 다른 이들에 대한 연민과 수용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와 비슷한 성향이든 그렇지 않은 상관하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말입니다.

19. 프레드 스페포드, 콜로라도

향심 기도를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소리 지르고 차 버리고 싶도록 기진해졌습니다. 저는 전문 기술자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향심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려면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향심 기도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보내는 순간순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 낸시 모란, 오하이오

향심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개념들, 매일의 삶에서 가지고 사는 당신의 작은 방식들까지도 떠나보내는 수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러 저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데 덜 집중하게 합니다. 제 생각에 집중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저는 사람들과 더 깊이 현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향심 기도는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부드럽고 다정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원한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며 더 많이 용서하고 자비로워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37. 임마누엘 팔레 수녀, 남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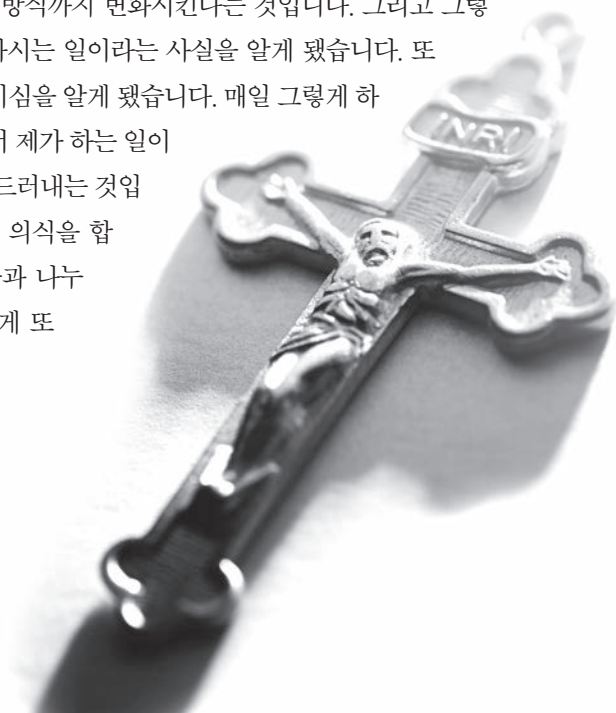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내심이 없어질 때 저는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똑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저와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향심 기도는 제게 신비가의 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 주었습니다. 노르위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당신을 안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엘리사벳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45. 이사벨 메사 란다이즈, 도미니카 공화국

저는 향심 기도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향심 기도를 알게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향심 기도를 알게 된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느님을 찾고 있었고, 그분께서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 물론 이 상태가 온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 제 삶 안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는 하느님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키팅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을 존재하시는 대로 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내가 그 무지의 신비의 한 부분이고 삶의 신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49. 길버트 워커 신부, 쿠바

제가 향심 기도를 하면서 배운 것은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자라면서 제가 하는 일이나, 사람들을 대하고 사목을 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이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노력하는 것은 생활 안에서 제가 하는 일이나 말 그리고 활동 안에서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항상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의식을 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총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에게 또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래의 글들은 제주지역 향심 기도 회원들의 체험담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1) 김영숙 키어스튼마리아

깊은 내적 침묵에 잠기어 생각과 욕망과 단어들을 놓아버림으로써 결국은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훈련, 이것이 향심 기도의 목표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자리에 앉습니다. 대 테레사 성녀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손에 저를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사랑입니다.

2) 김은실 데레사

매일 향심 기도 30분씩 두번... 이 시간을 우리 생의 나날에 투자하는 것은 영혼의 샘물을 파는 행위 같습니다.

깊고 맑은 샘물은 땅속 깊이 있다죠?

땅을 파야 샘물이 나오겠지요?

땅을 파보아도 또 파보아도 나오지 않을 샘 같지만...

영혼의 맑은 샘을 찾아 오늘도 종을 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주님이 주시는 샘물로 바짝 마른 일상에 해갈을 느끼는 위로도 얻습니다.

3) 김지영 논나

초심자에게 향심 기도와의 만남은 낯선 순례길입니다.

어둠 속에서 손 전등없이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을 향해 걷는 느낌이랄까?

내면의 수다스러움에 놀라 거룩한 단어를 조용히 불러봅니다.

하늘엔 비누거품 같은 구름만이 뽁뽁하고 우산도 없이 소낙비를 흠뻑 맞습니다.

빛나는 별이 있음을 알기에 깊은 종소리에 오늘도 마음을 맡겨봅니다.

4) 노영란 세실리아

이제야 힘겹게 알 껍질을 깨내고 있습니다.
'참 좋다!'라고 읊조리고 싶네요^^

5) 박동선 실비아

하루하루 살면서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항심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시간인 현재를 충만하게 살고, 하느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고 싶습니다.

6) 백상미 데레사

저는 항심 기도가 침묵하는 가운데 섬의 기도로서 하느님이 주시는 충전을 경험합니다~~^^



7,8) 에덴교회 이희봉 목사 / 박지애사모님

개념적 차원의 기도를 잠시 멈추고 비개념적 차원의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면 두 차원이 통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경험이 항심 기도를 매일 하는 삶의 행복입니다.

9) 송경옥 수산나

처음 항심 기도를 접하게 된 것은 2008년도 여름에 교구 성서사도직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을 할 당시 서 마리스텔라 지도수녀님을 통해서입니다.

신부님, 수녀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서 소개해 주셨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외로 목사님 부부와 몇몇 자매들이 기도를 이어갔지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박 3일 피정을 통해 충분히 소개하고 기도 훈련을 할 필요성을 느끼셔서 전국 규모의 피정을 제주에서 하기로 하고 모든 준비 역시 제주교구 신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녀님께서 소임을 맡으신지 2년이 채 안 돼서(보통은 3~5년) 다른 교구로 발령이 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정은 저에게 일임하셨고 교구 말씀봉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기도모임에도 함께 나가지 못했고 감이 잡히질 않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부님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주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2박 3일의 여정

을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정작 저는 기도에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8년 이시돌 피정을 계
기로 몇몇 자매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날까지 이어져 하고 있으니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도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도 같이 흔들리며 뿌리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두세 사람이라도 모임이 지속되다 보니 신부님께서 관심을 갖고
가끔씩 찾아주셨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대강당에서나 할법한 강의를 칠
판도 없는 다락방 같은 방에 모여서 전지에 색펜으로 써가면서 세세하게
열성을 다해서 꼭꼭 짚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9박 10일 피정을 다녀오고, 서울에서 향심 기도를
오래하신 자매님이 제주에 정착하게 되어 함께하면서 이제는 제법 주간모
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그 갈망이
컸던 목사님 사모님과 김테레사 자매의 수고와 헌신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분심 가득한 마음
으로 앉아있지만 그 분께서 하시고자 한
다면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캄캄할 뿐이고 마음이란 곳
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는지 막막하기
만 하지만, 그 분이 내 안에 계시
고 활동하심을 믿고 지향하며 눈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가
다듬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으며
거룩한 단어를 깃털보다 가볍게
떠올려봅니다. 그 시간이 점점 무
료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만도 않
고 단순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고
요함이, 침묵이 좋아집니다. 제대
로 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매일 두 번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길 밖에
없다 하신 신부님의 말씀이 귓전
을 맴돕니다.



2016년도 향심 기도 피정계획

❖ 소개 강의 및 피정 · 후속 강의 및 심화피정 · 집중피정 ❖

피 정		일 시		장 소	지 도	연 락 처	신청자격
1일 소개강의 (3회)		4월 11일(월) 4월 15일(금) 4월 18일(월)	오후 2시 ~ 5시	(광주) 중흥동 성당	정규완 신부 외 3명	010-6288-0237	향심 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
6주 후속강의 (3회)		6월 13일(월) 6월 17일(금) 6월 20일(월)					소개강의 및 소개 피정을 끝마친 분들
1일 소개피정		4월 12일(화) 6월 14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씨튼 영성 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향심 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
6주 후속강의		4월 02일(화) 6월 14일(화) * 위에 열거한 각각의 1일 소개피 정이 끝난 후 이어서 6주 후속강 의가 이어집니다.					소개강의 및 소개 피정을 끝마친 분들
1박 2일 소개연수		4월 30일(토) 오전 10시 ~ 5월 01일(일) 오후 3시		(마산) 가톨릭 교육관	이청준 신부	055)221-1891~2	직장인을 위한 향심 기도 주말피정
2박 3일 심화피정		2월 16일(화) 오후 3시 ~ 18일(목) 오후 3시				(제주)성 이시돌 피정의 집	055)221-1891~2
		4월 1일(금) 오후 3시 ~ 3일(일) 오후 3시		010-2002-1023			
		8월 12일(금) 오후 3시 ~ 14일(월) 오후 3시 * 주제: 향심 기도와 일상의 수련들		(마산) 가톨릭 교육관			055)221-1891~2
2박 3일 소개 및 심화피정		5월 05일(목) 오후 3시 ~ 07일(토)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박봉석 형제, 사랑의 씨튼 수녀회	041)733-2992~4	소개강의 및 피정을 끝마친 분들, 6주 후속강의가 끝난 분들, 향심 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
		10월 01일(토) 오후 3시 ~ 03일(월) 오후 3시					
2박 3일 심화피정		6월 03일(금) ~ 05일(일)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6주 후속강의를 마친 분들, 향심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
		11월 04일(금) ~ 06일(일)					
향심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1일 피정	4월 4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광주) 중흥동 성당	김영선 수녀	010-6288-0237	향심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
	2박 3일 피정	3월 11일(금) 오후 4시 ~ 13일(일) 점심 식사후 해산		(논산) 씨튼 영성의 집		02)421-1968	

피 정	일 시	장 소	지 도	연 락 처	신청자격
9박 10일 집중피정	8월 30일(화) 오후 4시 ~ 9월 08일(목) 점심 식사후 해산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관광지 원단 교수진	02)421-1968	3박 4일 이상 심화 피정을 마친 분들
(성공회) 1박 2일 피정	2월 06일(토) 오전 10시 ~ 07일(일) 오전 8시 마침	(강촌) 성 프란시스코 회관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향심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3월 12일(토) 오전 10시 ~ 13일(주일) 오전 8시 마침				
	5월 28일(토) 오전 10시 ~ 29일(일) 오전 8시 마침				
	7월 16일(토) 오전 10시 ~ 17일(일) 오전 8시 마침				
	9월 03일(토) 오전 10시 ~ 04일(일) 오전 8시 마침				
	10월 29일(토) 오전 10시 ~ 30일(일) 오전 8시 마침				
	11월 26일(토) 오전 10시 ~ 27일(일) 오전 8시 마침				
(성공회) 4박 5일 피정	6월 20일(월) 오후 2시 ~ 24일(금) 오후 1시 마침				
	10월 17일(월) 오후 2시 ~ 21일(금) 오후 1시 마침				

❖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 피정 ❖

피 정		일 시	장 소	지 도	연 락 처	신청자격
3박 4일 피정	인간 조건 과 영적 여정	5월 20일(금) 오후 3시 ~ 23일(월)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2)421-1968	향심 기도를 하는 분들과 누구나
		10월 6일(목) 오후 3시 ~ 9일(일) 오후 3시				
		12월 1일(목) 오후 3시 ~ 4일(일) 오후 3시				
	정서 프로 그램 과 향심 기도	12월 26일(월) 오후 3시 ~ 29일(목) 오후 3시	(마산) 가톨릭 교육관	이청준 신부	055)221-1891~2	향심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



❖ 월 침묵 및 연수 · 월 모임 · 새신의 날 · 전국 소기도 모임 ❖

피정	지역	일 시		장 소	봉 사	연 락 처	신청자격
월 침묵 피정	서울	3월 15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씨튼 영성 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향심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4월 19일(화)					
		5월 17일(화)					
		6월 21일(화)					
		7월 19일(화)					
		9월 20일(화)					
		10월 18일(화)					
		11월 15일(화)					
		12월 20일(화)					
월 새 신 의 날	울산	1월 31일(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4시 매월 마지막 일요일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왕영수 신부	011-488-1239 010-8029-6329 010-3834-4997	향심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2월 28일(일)					
		3월 27일(일)					
		4월 24일(일)					
		5월 29일(일)					
		6월 26일(일)					
		7월 31일(일)					
		8월 28일(일)					
		9월 25일(일)					
		10월 30일(일)					
		11월 27일(일)					
	광주	1월 04일(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광주) 중흥동 성당	박석렬 신부	010-6288-0237	
		2월 01일(월)			정규완 신부		
		3월 07일(월)			김영선 수녀		
		4월 04일(월)			윤행도 신부		
		5월 02일(월)			정규완 신부		
		6월 06일(월)			천정철 신부		
		7월 04일(월)			이청준 신부		
		8월 01일(월)			정규완 신부		
		9월 05일(월)			이청준 신부		
		10월 10일(월)			이청준 신부		
		11월 07일(월)	성지순례				
		12월 05일(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중흥동 성당	정규완 신부			
	여수 순천 광양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순천) 조례동 성당	정규완 신부	010-4855-0190		
	대전	4월 9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대철회관	이청준 신부	010-2948-3852		
	청주	4월 18일(월) 오후 2시 ~ 19일(화) 오후 3시	(청주) 교구 연수원	이청준 신부	010-9408-9670		
월 모임	대전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 8월 모임은 쉽니다.	(대전) 내동 성당 지하 요한방	김병연 요셉	010-2948-3852		

소기도 모임

지역	장 소	일 시	연락처	전화번호
서울	송파동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새길교회(4)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최성림 목사	010-3741-0252
		②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③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④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인천	만수 6동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강경애 세실리아	010-4780-7867
	* (성공회) 인천 계양교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경기	(남양주) 마석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 (부천) 성화의 집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강선희 목사	010-8631-7228
	* (고양) 살림 교회	①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지호 목사	031)912-4930 010-5101-4935
		②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대전	내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황경해 아녜스	010-6630-6649
	* 월모임 내동 성당 - 지하 요한방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김병연 요셉	010-2948-3852
	도룡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박정옥 소화데레사	010-8804-2160
	복수동 성당 - 유아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문숙희 데레사	010-6756-7990
충주	복대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김민지 글라라	043)233-9295
	영운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우영옥 루시아	010-5480-8520
	사직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최소자 카타리나	010-6506-8779
	송절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이현수 아가다	010-9937-3540
	분평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최옥희 미리암	010-8844-0633
	청산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곽동금 아녜스	043)733-2795
	미원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천경민 아가다	010-9408-9670
부산	좌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정예규 아녜스	010-3878-9638
	남천동성당 - 112호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부곡 성당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김귀연 세실리아	010-2322-5690
	당감 성당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홍경애 골롬바	010-3742-4516
	남산 성당	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김정희 실비아	010-3035-6358
		②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권진숙 빅토리아	010-8508-1691
	민락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정미례 크리스티나	010-9222-8015



지역	장 소	일 시	연락처	전화번호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①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왕영수 신부	052)239-1249 011-488-1239
		② 월요일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향심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대구	황금 성당	매주 화요일 저녁 미사후 8시	최석완 빈첸시오	010-3526-6611
	본리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최해자 세라피나	010-7795-0639
	만촌3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신서 성당 - 자택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김미남 율리안나	010-2223-4484
경주	성동 성당 - 성당 2층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박장동 베드로 류초아 안젤라	010-6477-3223
경남	(진주)하대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황혜순 율리안나	010-9667-8944
	(창녕)남지선교성당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박선애 카타리나	010-4661-9738
	(창원)사파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홍진순 루시아	010-9552-7315
	(거제)장승포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경화 도미니카	010-7559-1283
	(거제)옥포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복순 아녜스	010-9689-0072
	(거제)장평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주석환 유스티노	010-3193-1896
	(거창)거창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허재영 마르첼리노	010-8775-8382
		②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천경숙 크레센시아	010-9467-6866
광주	종흥동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강성자 도미니카	010-9883-2309
		②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송정순 데레사	010-2626-8217
		③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조연숙 리디아	010-2615-0741
		④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윤금 보리나	010-8230-0215
	원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최옥순 세실리아	010-3999-6331
	비아 성당	①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표금숙 로사리아	010-2683-4103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안은경 발렌티나	010-9885-8814
	두암동 성당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장충현 루치오	011-666-6931
담양	창평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이옥순 수산나	010-2610-0694
순천	조례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장호정 마리아막달레나	010-4855-0190
	저전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덕자 미카엘라	010-2629-3109
여수	선원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김지영 엘리사벳	010-7655-3952
광양	광영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이주미 세레나	010-4855-0190
곡성	곡성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임영옥 마리아	010-3689-1815
전주	솔내 성당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황정애 막달레나	010-9780-6388
제주	광양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김은실 소화데레사	010-2002-1023
중국	(북경)한인공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문희 벨라벳다	번호 미기제함,

2015년도 각 지역별 소식

■ 한국관상지원단 ■

항심 기도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발송된 소식지들이 많이 반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간소화와 경비 절감을 위해, 2016년도에도 기도모임 중심으로 소식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가 필요하신 분은 각 지역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거나, 한국관상지원단으로 문의(02)421-1968) 또는 이메일(koreacontout@dreamwiz.com)로 연락을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상지원단 홈페이지(www.centering prayer.or.kr) 자료실에서 소식지를 검색하면 한국관상지원단 일정과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 ■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에서 진행된 2015년도 항심 기도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여름철 메르스 여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행도 신부님, 천정철 신부님, 김영선 수녀님과 씨튼 수녀님들이 이끌어주신 월 침묵피정, 그리고 상·하반기 1박 2일 피정(강사 이청준 신부) 등으로 항심 회원들의 영적 갈망을 충족시키고 기도에 더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개피정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더 깊고 향상된 신앙을 선사하는 감사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교구 항심 기도회를 담당하시게 된 김귀웅 토마스 신부님께서 사목활동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울지역 소기도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www.hyangsim.com)를 이용하십시오.

■ 인천 ■

인천지역에서 항심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혼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소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면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간사(문의: 010-47807867)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 ■

2015년 대전지역 새신의 날(6월 27일)에 대철회관에서 25명의 회원들이 '거룩한 단어'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강사: 이청준 신부). 그리고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4시 전주 솔내성당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나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전지역 새신의 날은 4월 9일, 대철회관(문의: 010-2948-3852)에서 가질 예정이니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인근의 항심 기도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또한 항심 기도 소개강의 및 후속 강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일정은 차후 공지함).

■ 청주 ■

2015년 3월 27~28일 배티 피정의 집에서 1박 2일간 26명이 함께 피정을 하였고(강사: 이청준 신부), 2016년도에는 4월 18~19일, 청주교구연수원(문의: 010-9408-9670)에서 1박 2일 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강사: 이청준 신부).

■ 마산 ■

2015년 거창 본당에서는 본당 신자 및 인근 신자들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항심 기도 입문 강의 및 인간 조건 등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행도 신부님은 교구의 바쁜 일정 중에도 진주, 거제도 지역의 항심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진주에는 하대 성당(문의: 010-9667-8944)에 항심 기도 모임이 탄생되었으니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지 성당에서도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 기도회의 새로운 봉사자(문의: 010-4661-9738)가 선임되었습니다. 새로운 봉사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부산·울산 ■

부산 봉사자 차비아, 울산 봉사자 박마리아 자매이며, 2015년에는 항심 기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11 번의 하루피정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6년에는 렉시오 디비나와 항심 기도의 조화로

운 기도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은 부산과 울산의 중간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부산과 울산의 기도모임 회원들간의 정보교환과 우정을 키우기 위해 년 4차례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2년 전부터 왕신부님의 역점 사업의 하나가 기도회간의 유대와 동반 성장입니다.

■ 광주 ■

광주지역은 월1회 쉼의 날을 실시하며(30~50명 참석) 2015년도에는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를 통독했습니다. 2월에는 봉사자 교육(40명

참석), 4월에는 소개강의 3회, 6월에 후속강의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박 10일 피정을 다녀 온 회원 중심으로 피정 교재를 매주 월요일 6회에 걸쳐서 복습하였습니다(30명 이상 참석). 10월에는 광주, 여수, 순천 합동으로 거창성당에서 강의를 듣고 야외에서 친교의 시간(50명 참석)을 가졌습니다. 또한 간사, 부간사, 5개부서의 봉사자 선출이 있었고, 2016년에는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통독, 렉시오 디비나 강의, 소개강의 1회, 후속강의 1회, DVD시청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심 기도 회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2016년 9박 10일 집중피정 일정(8월 30일 ~ 9월 8일)을 공지합니다. 4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피정을 하실 분들은 한국관상지원단(전화: 02)421-1968)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신 주소’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관상지원단의 신 주소(우편번호: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8, MODS빌딩 512호 (문정동, 모즈아울렛)를 공지합니다.

| 지역 간사 명단 및 연락처 |

- | | | | |
|-------------------|---------------|-------------------|---------------|
| • 사무국장 박봉석 세례자 요한 | 010-6630-6649 | • 서울지역 한명숙 카타리나 | 010-8553-2374 |
| • 인천지역 강경애 세실리아 | 010-4780-7867 | • 대전지역 김병연 요셉 | 010-2948-3852 |
| • 청주지역 연인래 아가다 | 010-9408-9670 | • 마산지역 김명순 스킨라스티카 | 010-2363-5702 |
| • 부산지역 차순희 비아 | 010-3572-4308 | • 광주지역 김영재 알로이시오 | 010-6288-0237 |

※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 간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후원 회원 가입안내

한국관상지원단은 향심 기도 훈련을 통해 복음의 관상적 차원에 투신하는 모든 분들의 영적 조직망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현대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이 널리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1. **가입방법** : 02) 421-1968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koreacontout@dreamwiz.com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 E-mail등을 알려 주십시오.

2. **자동이체 방법** : 은행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은행 : 1006-701-302826 예금주 : 한국관상지원단)

3. **CMS계좌 신청** :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소식지가 개별로 필요하신 분은 주소 또는 E-mail주소를 알려주시면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